오르쉐 미술관처럼…강원랜드의 ‘도시재생’ 플랜

〈폐쇄된 기차역을 리모델링한 파리의 미술관〉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들 협력
폐광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강원랜드 “주민 자발적 참여 중요”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이나 직원 대부분은 강원랜드의 고객이 지역에서 밥을 사먹고, 물건을 사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먼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들 중에 강원랜드를 찾아 돈을 쓰는 것이 맞는 순환이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올 초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정책 도입이 필요함을 이렇게 역설했다. 강원랜드가 ‘도시재생’을 도입해 폐광지역 4개시·군(삼척 영월 정선 태백)의 자력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지역사회 발전 새 패러다임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산업구조 변화와 신도시 위주 도시확장으로 낙후된 지역에 새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해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 폐발전소를 활용한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 폐가스 저장고를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하는 독일 오버하우젠의 가소메타, 폐쇄한 기차역을 리모델링한 파리 오르쉐 미술관 등이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강원랜드가 ‘도시재생’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1995년 제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통해 1998년 설립된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각종 세금과 사회공헌성 비용으로 10조원이 넘는 돈을 기여했다. 하지만 정작 폐특법의 혜택이 필요한 폐광지역에서는 나아진 삶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당포, 마사지업소, 모텔 등 유해시설이 증가하고, 난개발에 따른 자녀 교육문제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요청이나 자체 판단으로 폐광지역 4개시·군에 골프장, 리조트 등 다양한 투자를 실시했지만 대부분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사 사업의 중복 투자로 실패를 거듭했다. 이처럼 정체된 지역의 경제를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국내외 각종 성공사례를 통해 주목받는 ‘도시재생’이 떠올랐다.

●주민이 앞장…강원랜드는 조력자 역할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사업 초기부터 주민, 지자체, 전문가들이 협력해 자신들의 잠재력과 고유한 문화 및 유산 등을 활용해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장기간 추진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폐광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석탄산업과 같은 문화 및 산업유산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및 봉사단, 행정력을 갖춘 지자체, 전문가들이 뭉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강원랜드의 한 관계자는 “폐광지역 도시재생은 강원랜드의 일방적인 주도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사업 성패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27일 열리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포럼 ‘좋은 마을 만들기’는 지역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는 폐광지역 도시재생의 첫 출발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폐광지역 도시재생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산으로 꼽히는 정선 강원랜드 인근의 옛 동원탄좌.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역사를 생생히 느껴볼 수 있는 이곳은 수직갱과 광부들이 타던 탄차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강원랜드

27일 ‘좋은 마을 만들기’ 포럼…도시재생 첫 걸음

27일 오후 1시40분부터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 포레스트볼룸에서 열리는 포럼 ‘좋은 마을 만들기’는 폐광지역 도시재생과 관련한 첫 공론의 장이다.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며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의 첫 단계로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이다. ‘폐광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지역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 500여 명이 참여한다.

포럼에서는 ‘왜 도시재생인가’, ‘누가 나서야 하는가’, ‘어떻게 좋은 마을을 만들까’라는 세 주제로 8명 전문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는 일본 도쿄 카쿠라자카 지역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지역 대표가 나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끝으로는 학계 전문가, 강원랜드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나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별에서 온 김수현, ‘파라다이스 시티’ 얼굴로…

국내 첫 복합리조트 홍보대사 위촉

게이밍·레저 전문기업 파라다이스 그룹(회장 전필립. 이하 파라다이스)이 한류스타 김수현과 손을 잡았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카지노와 2017년 상반기 개장을 앞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의 홍보대사로 배우 김수현을 위촉했다.

파라다이스는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높은 한류스타 김수현을 통해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으로의 이미지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현은 올해 5개의 국내 파라다이스 카지노와 인천 영종도에 건립 중인 국내 첫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에 맞춰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광고 활동 무대를 넓힐 예정이다. 광고는 18일부터 국내외 공항, 빌보드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는 주요 동선을 비롯해 항공사 기내지, 명품 매거진 등 매체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

파라다이스는 김수현 주연의 새 영화 ‘리얼’에 80억원 규모의 투자와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시티가 주무대인 촬영세트를 비롯한 투자지원을 했고, 개봉 후에는 관련 콘텐츠를 활용해 영화를 테마로 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여수 밤바다’ 외국인에 알린다 세방화 관광 5개 콘텐츠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외래관광객 지역 분산과 다양한 방한수요 충족을 위한 ‘세방화 관광상품’으로 부산, 강원, 경남, 전남, 대구 등 5개 지역 관광콘텐츠를 선정했다. 세방화(Glocal)는 세계화(Global)를 추구하면서 지방(Local)의 특징을 살린다는 의미를 담은 관광정책이다.

부산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찾아 떠나는 부산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메디뷰티 힐링여행!’을 내놓았고, 강원은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등 동계올림픽 주요시설과 강릉, 정선의 자연 경관을 연계한 ‘헬로우! 2018 평창!’을, 경남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프로포즈 무대로 주목받은 장사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설렘, 한류 웨딩·커플 여행’을 내놓았다.

전남과 대구는 내국인의 사랑을 받는 명소를 테마로 한 상품을 내놓았다. 전남은 여수 엑스포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여수 밤바다’의 야경과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생태공원의 노을 등을 연계한 콘텐츠를, 대구는 지역사람들이 즐기는 지역을 재해석하여 외래관광객이 생동감 넘치는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을 각각 내놓았다.

김재범 전문기자

재정비 마친 캐리비안 베이, 23일 개장

경기도 용인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사진)’가 50여일 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23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파도풀, 슬라이드, 스파 등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아쿠아틱 센터’와 국내 최장 길이인 550미터 유수풀 전 구간을 오픈한다. 30일부터는 야외 파도풀을 추가 오픈하며, 메가스톰, 타워부메랑고, 아쿠아루프 등은 5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상트페테르부르크 정기운항

대한항공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이르쿠츠크의 정기편을 운항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은 21일부터 A330 항공기를 투입해 주 3회(화,목,일) 운항한다. 오후 5시 55분 인천을 출발해 같은 날 밤 9시 30분(현지시각)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고, 귀국편은 오후 11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해 다음 날 오후 1시 50분에 인천에 도착한다. 5월 13일부터는 이르쿠츠크도 정기 직항편을 운항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